

신동빈 회장, 베트남 현장경영 건설·소재·물류 등 신사업 주문

(롯데그룹)

베트남 진출 계열사 사업현황 점검
국가주석 보좌관 등 주요인사 회동
“식품·유통 등 시장 경쟁력 강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찾아 올해 첫 해외 현장 경영을 펼쳤다. 신 회장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롯데몰·롯데마트 매장을 시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올해 첫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섰다. 신 회장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와 롯데센터 하노이 등 주요 사업장을 시찰했으며, 부 다이 탕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하노이시의 발전 및 양국 간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3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호텔 등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계열사의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2023년 9월 정식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호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그룹 계

열사의 핵심 역량을 집대성한 대형 복합물이다.

신 회장은 “베트남은 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로 식품과 유통 등 주력 사업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주력 사업은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도시 건설, 친환경 소재 산

업, 선진 물류 등 신사업 개척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신 회장은 22일 부 다이 탕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또 안 쏘 당서기장 및 국가주석 보좌관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AI發 반도체 호황… 4월 수출 역대 최대 전망

월 수출 700억 달러 돌파 분석도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러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우리나라 4월 수출이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은 물론, 월 수출액 700억 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4% 급증한 50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4월(364억 달러)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399억 달러(17.7% ↑)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04억 달러 흑자다.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4분기 반도체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달에는 328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바 있다. 이달 1~20일에도 이미 183억 달러를 기록해 5개월 연속 200억 달러 돌파는 물론, 두 달 연속 300억 달러 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399%), 석유제품(48.4%)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승용차(-14.1%), 자동차 부품(-8.8%)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70.9%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미국(51.7%), 베트남(79.2%), 대만(77.1%) 등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해당 지역 수출은 49.1%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에 불과해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 수출액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전체 수출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은 32억5000만달러로, 지난달(35억5000만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로 보면 49.4% 증가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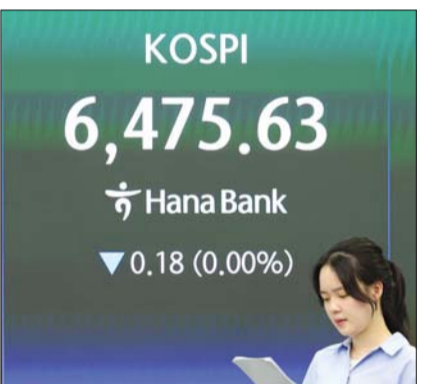
통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도체 중심의 수출 위상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피지컬 AI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호황이 향후 1년 이상은 거뜰히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metro

상승장 떠나는 개인… 월간 최대 순매도 전망

개인, 이달 들어 14.7조 순매도
외국인, 2.5조 순매수… 대조적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삼전 얼마까지 보니? 2024년에 9만원 옥심내다가 2년여 동안 고생했잖아. 오늘 팔까?” 금융사 이모(43) 차장은 지난 22일 일흔 노모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팔고 싶은 눈치였다. 삼성전자 때문에 시퍼렇게 멍들었던 겹겨가 올해 본격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쓴 랠리에서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는 날마다 기록적으로 팔아치우고 있다.

중동 협상 기대감이 커진 4월 들어 24일까지 개인 순매도(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것) 금액은 약 14조8000억원. 특히 주가가 천장을 뚫고 6300선 위로 올라간 21일에는 1조9204억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쏟아냈다. 반면 지난 24일 코스피 상승세가 주춤하자 1조1832억원 넘게 순매수를 했다. 여의도에서는 “오르면 본전 되자마자 팔고, 조금 내리면 사는 게

미들의 고질적인 투자 패턴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7670억원 순매도했다. 이미 월간 기준 지난해 9월 기록한 역대 최대 순매도액을 넘어선 상태다. 이달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2조5300억원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달 들어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순매도액 6조5810억원), SK하이닉스(2조4980억원)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2, 3위 종목이 S

K하이닉스, 삼성전자였다.

개인들이 ‘셀 코리아’에 열심인 것은,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불장 때 아픈 기억 때문이다. 당시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워낙 많았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편향적 행태(bias)가 발견됐지만, 개인 직접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그 특징이 더 선명하다. 자본시장 연구원이 주가 급등기인 2020년 3~10월 대형 증권사 4곳 고객 20만명의 일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미들은 ▲ 이미 급등한 주식을 뒤늦게 사고(과잉확신), ▲ 사서 조금 오르면 금방 팔거나, 내려도 손절하지 못하고(처분효과), ▲ 극단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주식을 쫓고(복권형 주식 선호), ▲ 때로 몰려다니는(군집 거래) 등의 크게 4가지 경향이 관찰됐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개인은 기업 분석보다는 수급이나 가격, 그날의 뉴스를 보고 주식을 도박처럼 사고파는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metro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최대 60만원

내달 8일까지 접수… 4개월간 사용

고유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돼,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순이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임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기존 4·9번뿐만 아니라 5·0번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며, 유흥 및 사행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metro

고객사 확보·장기 공급계약 등 악영향

>> 1면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서 계속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생산량 감소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노사 갈등에 따른 반도체 공급 일정과 고객사 대응에 미칠 영향을 더 큰 변수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HBM과 서버용 D램 등 AI 인프라용 고부가 메모리는 고객사 인증과 납기 일

정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공급 타이밍이 어긋날 경우 데이터센터 구축과 서버 출하 일정, 나아가 고객사 AI 칩 출시 시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확대된다.

문제는 이 같은 리스크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완제품 생산 일정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공급이 지연될 경우

후방 공정뿐 아니라 완제품 생산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HBM 납가가 지연될 경우 삼성전자는 계약 이행 측면에서도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는 고객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로 물량을 분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노사 리스크가 반복되면 장기 공급 계약이나 차세대 제품 인증 과정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

美 만찬장 총격… 트럼프 “전쟁 관련없어”

>> 1면 ‘중동전쟁 2개월…’서 계속

협상에 진전이 있을 시, 1차협상을 이끌었던 JD 밴스 부통령이 나중에 합류할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측과의 회담에서 전쟁 종식과 관련해 이란 정부의 ‘원론적’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오만에 도착한 뒤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이 진정성을 갖고 외교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워싱턴 D.C. 모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도중 인근의 총성에 급히 피신했다. 25일 2차 협상이 무산된 직후의 사건이다.

트럼프는 이후 “총격범이 나를 노린 것 같다. 대 이란 전쟁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